

이단교리분석 · 반증 41

정은기 목사 // 하나님의성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대전양우교회 담임



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 성경해석 비판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 사고를 당하여 수혈을 받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수혈을 거부함으로써 죽는 경우들이 있다.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로 수혈을 거부하게 하는지 먼저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세계 여러 곳에서 또 다른 일반적인 관습은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울버로 빼지 않은 고기를 먹거나 피를 빼서 그 피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합니다. (창세9:34; 레위17:10) 그러면 수혈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수혈하는 것은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라고 추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자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들이 흔히 수혈하는 같은 방법으로 그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성서는 우리에게 피를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15:20, 29)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의사가 술을 멀리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입으로 마시지 말라는 말이요 정맥으로 직접 주사하는 것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멀리하라'는 말도 그것을 전혀 품으로 들여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위치타워성서책자협회, 1982, p.216)

위의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본 주제에 대해 반증을 하겠다.

먼저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 중 구약성경의 구절을 자세히 검토해보자. 창세기9:3-4에서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찌라 체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17:10-11에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피를 먹지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였고 '이 피를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는 데서 찾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를 단에 뿌림으로 속죄가 되는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9:22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베드로전서1:18-20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을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이요 뜻임을 알 수 있다. 히브리서10:1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한대로 구약에서의 제사는 그림자요 참 형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먹지말라고 하신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속죄의 의미를 가지는 피를 경시하지 않게 하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다른 이유를 창세기9:5-7의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다.

그러면서 피를 '생명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행위를 금하셨는데 동물의 피를 경시한다면 분명 사람의 생명도 경시할 수 있기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피를 먹지말아야 한다고 해서 수혈을 통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수혈을 거부하게 해서 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어 피를 먹지말라고 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피를 먹지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 거부의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 사도행전15:28-29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기한 줄 았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고 구절에서 피를 멀리하라고 기록한 구절을 들고 있다. 이 구절은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위의 결정은 야고보의 의견(행15:19)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 결의(행15:25)된 규례(행16:4)이다. 규원과 관계된 법이라면 '의결'을 듣고 '결의'해서 교회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규례를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율법의 전통이 품에 배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하나됨과 융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여호와증인들은 이 규례를 규원과 관계되는 법으로 절대화 시켜서 수혈을 거부하게 함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간접 살인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살인을 금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수혈 거부'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한 비성경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신천지의 이단성과 성경해석 비판

경각심 일깨우고 바른 방향 제시 한국교회 이단논쟁 심각하게 점검해야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운동 비평 2차 심포지움이 '신천지의 이단성과 성경해석 비판'이란 주제로 지난 4월 22일 (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00-3 신반포중앙교회(담임 김성봉 목사)에서 열려 신천지의 교회침투를 적극 저지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먼저 박용규 교수의 인도로 이효상 목사가 대독한 오경호 목사의 환영사와 장재성 목사의 설교와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첫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구 박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조직신학)는 '신천지의 이단적 가르침의 실상'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신천지의 계시론의 문제, 창조론의 문제, 타락 이해의 문제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구원 이해,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령님에 대한 비성경적이고 기교한 이해, 구속에 대한 잘못된 이해, 종말과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성경적 이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문제, 등을 들어 신천지의 이단성과 성경을 지의적이고 왜곡된 해석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답하자"고 할 때에는 그들이 말하는 전후 문맥을 반드시 잘 살펴봐야 하며 그들의 왜곡된 주장에 현혹되지 않게 된다고 주의의를 촉구하였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자 김성봉 목사는 '신천지 성구 풀이에 대한 개혁신학적 비판'이란 주제로 신천지 교주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과, 신

도에 대한 은연중에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부차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비판, 그들이 주장하는 요점 등을 성경의 실례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들이 비유풀이 등으로 이끄는 교주에로의 집중에 현혹되지 않도록 건전한 성경의 문맥과 교리의 바탕 위에서 성경을 바로 읽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3번째 주제발표자 신현욱 소장(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은 신천지 비유론 곧 1. 비유한, 씨, 나무, 새, 2. 비유한 그릇, 저울, 지팡이, 3. 비유한 불 향로, 가마, 4. 비유한 물, 샘, 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들의 왜곡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하였다.

끝내 심포지움은 한국기독교사연구소(소장 박용규 교수)와 미래목회포럼(대표 오경호 목사)의 주최로 CBS 신천지 아웃, 극동방송, 한국성경신학회, 신반포중앙교회, 한국 기독교학회 후원으로, 약 300여 명이 참여함으로 신천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큰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자극에 한국교회가 이단 논쟁으로 그 폐해의 심각성 깨닫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심포지움은 이단, 사이비 등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은 몸부림이라 생각하며, 교회성장에만 매여 누, 귀를 가리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설교의 강단에서부터 스스로의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며, 작은 몸부림의 불꽃이 사들지 않도록 기도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성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다문 화사인 김해성 목사 //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bosinkim@yahoo.co.kr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이주민 선교

15.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은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라고 말씀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의(義)를 이루며 살라는 말씀이

다. 의(義)는 '의롭다'는 뜻으로 '양(羊)'자와 '의(義)'자로 구성되어 있다. 양을 내 머리에 이고 있는 형상이다.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를 떠받드는 것이 의롭다는 뜻이다.
몸골을 방분했 때 토실토실한 양한 마리를 끌어

왔다. 넘어뜨리더니 이내 올라앉아 도살을 하는데 발을 묶지도 않고, 예리한 칼로 가슴을 4-5센티미터 찢더니 뱃속에 팔뚝을 집어넣었다. 5분여가 지난 때쯤 양이 기절을 했고, 그 이유를 몰랐더니 심장으로 들어가는 핏줄을 꼭 쥐고 있으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기절을 한다는 것이다. 양이 깨어나기 전에 가슴을 벗겼고, 핏줄을 건드리지 않고 살점을 도려 내었다. 말한 방식 사용하지 않는 대단한 도살능력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이 죽어가면서 '음메---' 소리 한 번 없이 죽는다는 사실이었다. 양은 남을 공격하지 못

하고, 그저 잡아먹히기만 하는 짐승이다. 죽으면서도 입한 번 열지 않는 연약한 존재의 상징이다.

과연 한국 사회에 양과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 소년 소녀 가장도 있고, 독거노인들과 장애우들도 있다. 미흡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150만 명을 넘어선 외국인들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인 약점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말한 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들이 아무리 신음을 하여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양과 같이 연약한 이들이다.

이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자 축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 '미(美)'는 '양'자 밑에 '미(大)'자이다. 가장 큰 자가 가장 약한 자를 떠받드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이다. 착한 '선(善)'자 또한 양(羊)머리에 풀 '초(艸)', 입 '구(口)'자다. 양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먹여주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뜻이다. 결국 가장 연약한 이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일이 '의'를 이루는 일이고, 복을 받은 일이라는 것이다.

제2회 총회장배 전국교역자 친교 볼링대회

대표고문	조용목 목사	상임고문	김성광 목사
고문	증경총회장단	준비위원장	차재성 목사
지도고문	진동용 목사	진행위원장	김광원 목사
대회장	총회장 김인찬 목사	총무	김기영 목사

일시 2013년 5월 20일(월) 오전 10시
장소 시드니볼링장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7번지 전화:031-234-4290

- 참석범위(총회원) : 1.단체전(지방회별2명) 2.개인전(3게임합산평균점수)
- 시 상 : 1등, 2등, 3등(단체전·개인전)
- 참가비 : 단체전(4만원) 개인전(1만5천원)
- 진행 : 1부예배, 2부볼링대회, 3부오찬(중식제공)
- 신청 : 총무 김기영 목사(010-6657-9510) 5월 11일까지 경기운영상 접수요함 계좌번호 356-0354-7840-33(농협 차재성)

총회 볼링회 회장 : 차재성 목사 총무 : 김기영 목사

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자비량부흥성회

할렐루야!
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자비량 부흥성회를 기도로 준비된 부흥사들을 중심으로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교회와 교역자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행복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은 2013년도에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우리 교단 교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함께 부흥하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비량 부흥성회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부흥회의 생각은 있으나 교회 사정상 망설이셨던 교회와 목사님, 전도사님들께서는 결코 망설이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 하시어 감동과 열정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자비량 부흥성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흥사로서의 사명은 있으나 기회를 놓쳐 활동하지 못한 분들은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 연수 후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의하여 시작한 자비량 부흥성회에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AG 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장 : 신재영 목사 H.P 010-4420-8650, 상임총무 : 김연훈 목사 H.P 010-8234-2290, 부흥사회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352-664242